

수능 국어

짱

모든 **학년도** (2020, 19, 18, 17, 16AB) **문제와 풀이**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국어 모든 연도 문제를 수능국어 짱 원리로 풀이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수능국어 **짱**

차례

- **수능국어 짝** 시리즈의 저자 **이성호** 선생님의(문의처 : 010-7932-4149) **명쾌하고 확실한 해설**
- 2020, 19, 18, 17, 16(A, B) 모든 학년도 기출 수능국어 새로운 해설
- A4로 편집하여 용이한 출력

1. 2020 기출 수능국어 문제	1
-2020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36	
2. 2019 기출 수능국어 문제	59
-2019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97	
3. 2018 기출 수능국어 문제	122
-2018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159	
4. 2017 기출 수능국어 문제	182
-2017 기출 수능국어 문제 해설 218	
5. 2016 기출 수능국어 A형 문제	244
-2016 기출 수능국어 A형 문제 해설 279	
6. 2016 기출 수능국어 B형 문제	300
-2016 기출 수능국어 B형 문제 해설 337	



수능국어

2016 B형 수능 국어 **문제와** 해설

이성호 저

수능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2016 B형 수능문제

2016 수능 국어 B형 문제

홀수형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문화 해설사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설사 :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진행자 :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 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01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묻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02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학생 1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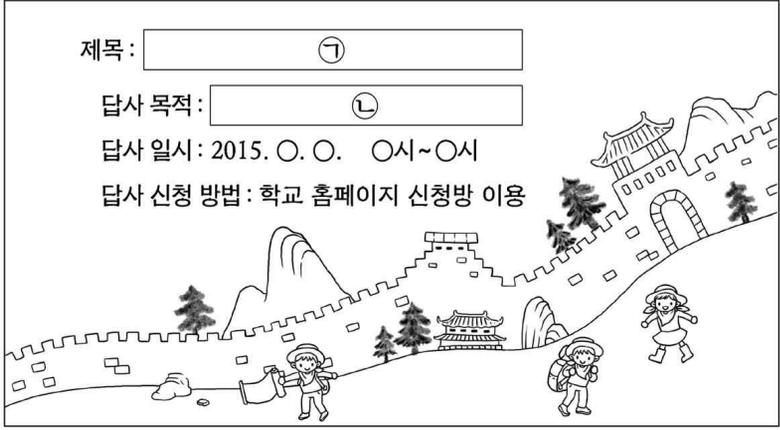
학생 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

답사 목적:

답사 일시: 2015. ○. ○. ○시~○시

답사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신청방 이용



- ① ㉠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② ㉠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 ③ ㉠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 :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 ④ ㉠ :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 ⑤ ㉠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20××년 세계 □□ 사이클 대회 A시 유치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클 선수 ○○○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 사이클 대회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마흔두 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이고 경쟁 도시는 유럽의 도시입니다.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대회도 충분히 잘 치

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이클 회원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이클 활성화에 앞장서면서 세계 사이클 협회와의 약속을 지켜 왔습니다. 이전 대회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 우호 증진에 힘쓰겠다는 당시의 공약대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 없는 해외 도시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최지로 확정되면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 꿈은 A시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A시 모든 시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대회 유치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② 청중이 대회의 취지를 중시하므로 A시가 대회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 ③ 청중이 사이클에 애정이 있을 것이므로 청중과의 공통점을 내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A시 도로 경기장에 대해 설명할 때 선수로서의 경험을 내세워야겠어.
- ⑤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겠어.

04 연설자가 연설에 사용한 전략과 구체적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점]

예상 평가 항목 \ 전략	전략	강점 부각	약점에 대한 인식 전환
대회 취지 부합성		㉠	㉡
대회 개최 여건		㉢	㉣
대회 운영 능력		㉤	

- ① ㉠ :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보여 준다.
- ② ㉡ :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 ③ ㉢ : 경기 시설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부정적 시각을 차단한다.
- ④ ㉣ :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을 근거로 내세워 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

한다.

- ⑤ ㉔ :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05 A시의 경쟁 도시를 지지하는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시의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② A시가 국제 대회 개최 경험이 많다고 한 것은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 ③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 ④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의 사례가 되므로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⑤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므로 A시가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8] (가)에 따라 글을 쓰기 위해 (나)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및 계획

- **작문 상황** : 일회용품을 즐겨 쓰고 쉽게 버리는 등 값싸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 생활이 가져오는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고 소비 생활의 관점을 바꾸기를 촉구하는 글을 쓰려 한다.

- **주제문** :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을 하자.

○ **개요**

I. 서론

II. 현재의 소비 생활

-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 ㉑
-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 ㉒
-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 ㉓
-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㉔

III. 대안 :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1. 실천 방법

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나. 제품 사용 시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함

2. 기대 효과

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

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

IV. 결론 : 소비 생활의 관점 개선 촉구 및 제언

(나) 인터뷰

질문자 :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이 있나요?

전문가 :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 : ㉠제품에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 :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기업에는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문가 :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증하는 것도 있고,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도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직접 표시해서 소비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신문 기사

최근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줄인 음료수를 개발하고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출시하였다.

06 (가)의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II의 내용을 항목화하려고 한다. 정보간의 관계와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항목'과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항목 | — | 내용 |
|---------|---|------|
| ① 1. 양상 | — | ㉠, ㉡ |
| 2. 문제점 | — | ㉢, ㉣ |
| ② 1. 현황 | — | ㉠, ㉡ |
| 2. 종류 | — | ㉢, ㉣ |
| ③ 1. 실태 | — | ㉠, ㉡ |

- 2. 원인 — ㉔, ㉕
- ④ 1. 목적 — ㉑, ㉒, ㉓
- 2. 필요성 — ㉕
- ⑤ 1. 대책 — ㉑, ㉒, ㉓
- 2. 심각성 — ㉕

07 ㉔, ㉕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②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③ 작문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다.
- ⑤ 예상 독자의 성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한다.

08 (나), (다)를 활용하여 (가)의 Ⅲ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Ⅲ-1-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과 관련된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Ⅲ-1-가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동종 제품 가운데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Ⅲ-2-가에서는 (나)를 활용하여 환경 표지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Ⅲ-2-나에서는 (다)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⑤ Ⅲ-2-나에서는 (나)와 (다)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곁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

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09 학생이 초고를 쓰는 과정에서 소재로부터 떠올린 생각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버스 → 바쁘게 오고 가느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② 새 소리 → 이전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구나.
- ③ 나뭇잎들 → 서로 다른 모습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 ④ 가을 →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 ⑤ 친구들 →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10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의 마지막 부분이 완결된 것 같지 않아서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해야겠어. 둘째 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 내어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빛깔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야겠다.
- ③ 다양한 삶의 빛깔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가야겠다.
- ④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니게 될 것이다.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삶의 빛깔을 지녀야겠다.

11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 보 기 |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ㅆ]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 ㄷ, ㄹ, ㅅ]으로 발음한다. ……………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ㄴ]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 [ㄱ,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 [ㄱ, ㄴ]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ㄱ, ㅈ]으로 발음한다. ……………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몹+을	㉠	[목슬]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1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 뭐? ㉡저거?
 아들 : 네,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 그래? 그러면 ㉤어제였네.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
 시면 안 돼요?
 엄마 :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1[무]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2[조]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동]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2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15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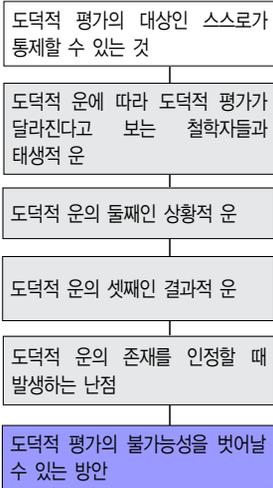
| 보기 |

王(왕)이 니르샤되 大師(대사) ㉠흐산 일 아니면 뉘 혼 거시잇고 ㉡仙人(선인)이 슬보되 大王(대왕)하 이 ㉢南塚(남굴)스仙人(선인)이 혼 썩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흐야 ㉣世間(세간)애 ㉤쉽디 못흐니 그 썩 흐 님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ㅣ 나느니이다 -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아’와 ㉢의 ‘ㅣ’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스’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론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본론**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걸썩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 주면 된다.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평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❶ 도덕적 운을 내세워 도덕적 평가의 불공평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박함으로써 도덕적 평가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 발현 :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
- 통용 : 일반적으로 두루 씀.
- 부각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17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8 ㉡의 관점에 따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다.
- ㄴ.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 ㄷ.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 ㄹ.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9 읽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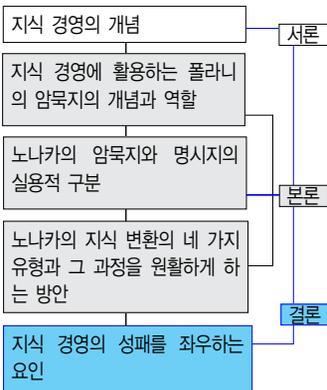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한다.

- 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 ②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다.
- ③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본다.

20 a~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② b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 ③ c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 ④ d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씬.
- ⑤ e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글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다.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플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나카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지식 경영론을 펼쳤다. 그는 폴라니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으로 파악했다. 또한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노나카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동화’라 한다. 암묵지에서 명시지로의 변환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것으로서 ‘표출화’라 한다.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은 ‘연결화’라 하고,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것은 ‘내면화’라 한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 공유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를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지식 경영의 개념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에 활용하는 폴라니의 암묵지의 개념과 역할을 밝힌 뒤, 이를 활용한 노나카의 암묵지와 명시지의 실용적 구분을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을 내세우고 있다.

어휘·클리닉

- 체화된: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된
- 수반: 붙좨아서 따름.
- 숙련: 연습을 많이 하여 능숙하게 익힘.

21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지식 경영론의 등장 배경을 탐색하고 있다.
- ②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플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플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23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표출화'의 사례이다.
- ③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연결화'의 사례이다.
-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공동화'의 사례이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보상했지만,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유용성이 낮은 제안서가 양산되었고, 가시적인 지식을 산출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착과 헌신은 감소했으며,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

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②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필요가 있다.
-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집단적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헌신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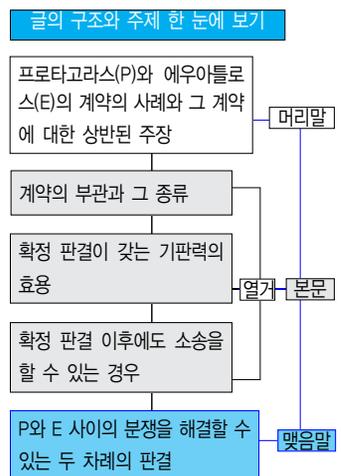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난제로 알려진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계약의 사례와 그 계약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개념들을 설명한 뒤 그 해결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난해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어휘·클리닉

•변론술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술.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26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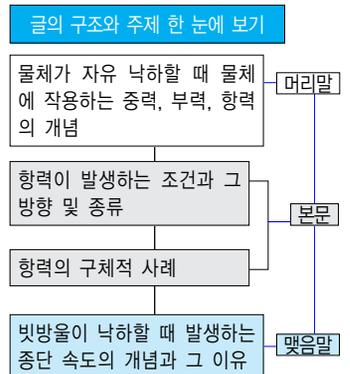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28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수취하였다
- ② ㉡ : 부가하는
- ③ ㉢ : 지시한다
- ④ ㉣ : 형성되었을
- ⑤ ㉤ : 경유하여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에는 부력이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해 있을 때와는 달리,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이다.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으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미세 먼지와 같이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가 매우 작아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빗방울의 크기가 커지면 전체 항력 중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진다.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

물체가 유체 속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힘의 종류와 그 개념을 밝히고 그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다음 빗방울이 낙하할 때 발생하는 종단 속도의 개념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휘·클리닉

- 유체 :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평형 :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해 있음.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카이다이버가 낙하 운동할 때에는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②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는 그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③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 ④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⑤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쇠 막대에 작용하는 부력은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가 더 크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의 물체 A와 B를 공기 중에 고정하였다. 이때 물체 A와 B의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더 크다. 물체 A와 B를 놓아 주었더니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각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상승하였다. (단, 두 물체는 공기나 다른 기체 중에서 크기와 밀도가 유지되도록 제작되었고, 물체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체의 흐름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가정함.)

- ①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A에 작용하는 항력이 B에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군.
- ③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군.
- ④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 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에 작용하는 항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 항력보다 더 크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불을 끈 다음에 아내가 다시 소곤거리려 왔다.

“당신두 보셨죠? 오늘사 말고 영기 엄마 배가 유난히 더 불러 보였어요. 혹시 쌍둥이나 아닌가 싶어서 남의 일 같잖아요. 여덟 달밖에 안 된 배가 그렇게 만삭이니 원…….”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

㉠나는 그날 밤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내가 권씨의 궁둥이를 걷어차고 권 씨가 내 궁둥이를 걷어차는 꿈을 꾸었다.

아내가 권 씨네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권 씨 부인의 그 금방 쏟아질 것만 같은 아랫배에 관한 관심이었다. 말투로 볼 때 남자들이 집을 비우는 낮 동안이면 더러 접촉도 가지는 모양이었다. ㉡예정일도 모르더라도 아내의 낄낄 웃었다. 임신부가 자기 분만예정일도 몰라야 말이 되느냐고 핀잔했더니, 까짓것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어차피 때가 되면 배 아프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아홉 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윤희길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서민의 고통
스러운 삶.

짧은 줄거리 : 선생인 '나'는 권기용 가족에게 문간방을 세놓는다. 그는 광주대 단지 소요사태 때 주동자로 몰려 전과자가 되었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원래 출판사에 다니던 권 씨는 집 장만을 해 볼 요량으로 철거민 입주권을 얻어 광주대단지에 20평을 분양받는다. 그러나 땅값, 세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여 도시빈민으로 전락한다. 그는 남루한 살림에도 열 컬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 구두는 그의 체면과 교양과 자존심을 유지해주는 상징적인 물건이며, 그가 거주하는 정신의 집인 셈이다. 얼마 후 손산이 어려운 아내의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주인집에 대해 서툰 강도 행위를 하다가 마침내는 스스로 사라져 행방불명되어 버린다. 아홉 컬레의 구두만 남긴 채.

며 낚기는 마찬가지로 태평으로 있더라는 것이었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 “동주운아, 노을자야!” 하고 둘이 합창하듯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한 권 씨의 아이들은 끼니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그렇다고 권 씨나 권 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㉔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 시리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 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 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임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짓 알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꽤 씁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 권 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엇그제인 걸 벌써 잊고 아내는 셋방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권 씨 부인은 어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뜸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렇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되게 몸살을 하듯이 끄끙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르짖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그것이 방을 세내 준 이후로 처음 듣는 권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한번 권 씨 설득해 보세요. 제가 서너 번 애길 했는데 두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구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권 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홍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잡함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짝짜꿍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 듣던 대로 권 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곤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거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작자가 정도 이상으로 느낄거린다 싶어 나는 엔간히 모진소리를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3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내’는 ‘권 씨네’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을 비판하는 ‘나’로 인해 생명을 앓는다.
- ② ‘아내’는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간 내기가 아니라고 간주한다.
- ③ ‘아내’는 ‘권 씨 부인’의 진통이 시작된 것을 ‘나’를 통해 알게 된다.
- ④ ‘아내’의 불안감과 우려는 ‘나’로 하여금 ‘권 씨’를 불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를 위로하는 ‘권 씨’의 행동은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의 경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아내’의 말을 통해 다른 인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관찰하고 있는 인물들의 내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과 ㉢은 ‘나’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과 ㉢은 인물들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70년대 한국 소설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이 나타난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세태가 심화되고 계층 분화가 일어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과 같은 소외 계층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소설의 주요한 제재로 반영되고 있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궁핍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화석/사나리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제향날, 채만식

주제: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부, 아들, 손자의 3대에 걸친 현실 저항의 지

해제: 이 희곡은 19세기 말에서부터 1930년대까지 온갖 수난을 다 겪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남편 제삿날 밤에 마주앉아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해가는 형태로 된 3막의 장막극이다. 따라서 시대 배경은 1894년 동학운동 때와 3·1운동 때인 1919년, 그리고 당시대인 1936년으로 되어 있다. 소지주였던 한말 세대 할아버지 김성배는 부패한 정권과 외세에 항거한 동학혁명군의 접주(接主)로 활약한다. 그러나 동학군의 패퇴와 함께 관군에 의해 공개 처형당한다. 그리고 그 동학군의 2세 김성배의 아들 영수는 아버지의 가업을 잇다가 기미년 3·1운동 때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민족독립을 위하여 활약한다. 그러나 그 역시 국내에서 관헌에 쫓기다가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중국 망명지에서 그는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위해 고향의 전답을 모두 팔아감으로써 집안은 폐가가 될 정도로 몰락하고 만다. 따라서 3대가 되는 망명가의 아들은 열악한 가정형편 때문에 동경유학생활도 고학으로 지낸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씨 : ㉠네 외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 오늘 오매[正午]나 되어서 촌에서 잤혀 온 다른 동학꾼 둘하고 같이 셋을 한꺼번에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사정(射亭)으로 끌고 나와서는.

(㉠무대 급히 압전. 다시 서서히 밝아지면 제2장)

제2장

[무대] 정면으로 ‘정기정(正己亭)’이라는 현판이 붙은 사정. 좌우는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무대가 밝아지면 사정 마루에 앞으로 수령이 좌정하고 뒤와 좌우로는 각방 이숙이 나열. 대뜰에는 엮드린 급창. 대뜰 밑으로 바로 김성배 외에 두 사람의 동학당원이 결박을 진 채로 꿇어앉았고, 그 뒤로 년지시 참령이 거느린 병정 일 지대가 정렬해 서 있다. 사정 좌우로는 겁먹은 남녀노소들이 묵묵히 서서 있고 김성배의 모친도 남의 부축을 받아 그중에 섞여 있다.

수령 :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말을 해라.

급창 : (창을 내어) 너희들을 죄상에 의지해서 지금 처형을 하거니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아뢰옵신다 —.

사령 : (죄수들을 들여다보고) 아뢰라.

죄수들 : (끔찍 아니 한다)

사령 : (김성배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성배 :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문다)

모친 : (옆의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서서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는다)

사령 : (상투를 놓아주고 동학당원 갑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갑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사령 : (동학당원 을의 풀상투를 잡아 제치면서) 아뢰라.

동학당원 을 : (우는소리로) 살려 주시오.

사령 : (상투를 놓아준다)

급창 : 살려 달라고 아뢰오—.

수령 : 처형해라.

급창 : 처형하옵신다—.

참령 : (병정들더러) 형장(刑場)으랏!

(병정들 달려들어 죄수 하나에 3, 4인씩 붙어서 좌우로 끼고 뒤에서 밀고 나머
지 병정들과 참령은 그 뒤를 따라 상수로 퇴장. 상수에 모여 선 구경꾼들은 외
해어지고, 그중 김성배의 모친은 김성배에게로, 영감 하나는 동학당원 갑에게로,
여인 하나는 동학당원 을에게로 제각기 달려들다가 병정들에게 밀어박질려 물러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⑥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영오 :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디 있었수?

최 씨 : 나는 집에 있었지, 못 나가고. 애기 뱀 여편네가 관가 행차나 병정들 행군하
는 데 나서면 담박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너희 외증조할머니가 어디 나가게
하시드냐,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영오 : 그런데 참 할머니.

최 씨 : 오-냐.

영오 :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잡아갔으니까 그럼 외, 외, (터듬다가) 외증조할아버지
는 내놓아 주어예지?

최 씨 : 글썸, 경우는 그래야 할 것이지만 어디 바루 내놓아 주드냐! 그런 뒤에도 훗
씬 한 달이나 있다가 뇌물을 흙씬 먹고 그러고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
로 곤장을 사십 대나 때려서 내놓더라. 야속한 일도 다 있지! 글썸 그러니 그
노인이 몸이 성하셨겠니? 옥에서 나오시자 보름 만엔지 돌아가신걸. 그래서
네 외증조할아버지 제향은 바루 시월 열사흘 날이란다.

영오 :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

최 씨 : ㉠그래 그렇게 사정 마당에서 앞뒤로 웅위해 가지고 사정 바루 건너편 과녁
있는 데로 끌고 가더니 (한숨, 사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제각금 다리
까지 친친 동여서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고는 병정들은 열댓 걸음이
나 이쪽으로 물러서더니마는, 아마 한 이십 명이나 되지? 그런 병정들이 죽
— 늘어서서는 총을 고누더구나, 그래 방금 총소리가 나는 줄 알고 나는 울
타리 구멍으로 내어다보다가 눈을 감았더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총소리
가 나지를 않겠지! 그래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제3장)

제3장

[무대] 정면은 들을 건너 단풍 든 먼 산. 상수로는 나직한 언덕이 있고 언덕
앞으로 과녁. 하수는 흑막(黑幕). 무대가 급히 밝아지면 과녁에서 넉지시 떨어져
김성배와 두 동학당원이 결박을 지고 다리를 묶여 하수를 향해서 서서 있고 그
옆에는 둘둘 말아 놓은 한 무더기의 섬거적. 병정 한 사람 손에 흰 무명 가드락
을 들고 하수로 급히 등장.

병정 : 흥! 이놈들 평양 감사를 나갑네 순천 부사를 나갑네 하더니 겨우 섬거적 한
뉘씩을 지고 염라국으로 가니? — 채만식, 「제향날」—

* 전경 : 앞 장면. 여기서는 2장의 앞 장을 의미함.

34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와 영오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 ② 최 씨는 자신의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 ③ 최 씨가 영오에게 과거의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 ④ 영오가 듣고 있지 않으므로 최 씨의 낯두리에 해당한다.
- ⑤ 최 씨는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을 통해 짐작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막을 여닫지 않고도 장면을 전환하는 효과를 수반한다.
- ② ㉡는 ‘모친’과 함께 ‘최 씨’가 등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다.
- ③ ㉢는 퇴장했던 ‘죄수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 ④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형성한다.
- ⑤ ㉡ 직전 장면과 ㉢ 직후 장면은 상호 연계되어 사건 전개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보여 준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채만식은 「자작 안내」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1부로, 기미(3·1운동) 전후를 2부로, 그 뒤에 온 시대를 3부로 하여 「제향날」을 구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제향날」의 1~3장(1막)은 1894년의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극중 현재(제삿날)」에서 43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지닌 회상된 과거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① 작가는 독자들의 의문을 대신하기 위하여 극중 현재에서 영오의 질문을 제기하고, 회상 기법을 통해 그 답변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② 작가는 「제향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날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극중 현재에 찾아온 제삿날의 의미를 독자들이 상기하도록 유도하려 했겠구나.
- ③ 작가는 과거 사건으로 정기정 재판을 구상하고, 관부의 권위에 억눌린 민중의 모습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동학 농민 운동을 역사적 소재로 인식시키고자 했겠구나.
- ④ 최 씨 가족의 수난에 집중하는 독자는, 작품의 이중적 시간 구조를 매개하는 최 씨 역할에 주목하고, 최 씨의 신중한 대응을 비판해야 한다는 작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 ⑤ 1937년에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1894년이 회상되는 방식을 통해 43년의 시간 격차를 자각하고,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과거와 일제 강점기라는 현재가 긴밀하게 상관된다는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라가 기막혀 우는 말이,
 “㉠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명천 감동하와 백호를 죽여 주오, 애고애고 설운지코.”
 이렇듯이 슬피 우니 호랑이 듣더니,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뒤흔다 만 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일사(一死)면 도무사(都無死)라. 무이불식(無以不食)이라, 모조리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어따, 네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니, 호랑이가,
 “애고, 놓아.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았으며 움쳐 든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
 하며 저마만치 물러앉으니,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
 “게서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 충신 간의대부 겸 시랑 별주부, 별나리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 별자 몰라듣고 무수히 새겨,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직품은 높고 찬란한데, 그러면 목은 어찌 그리 되었으며, 이곳엔 어찌 나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봅세.”
 “㉡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여 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제,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찢겨 내려 박혀 목이 이리 되었기로 명의더러 물어본즉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벽력 장군 앞세우고 도로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왔으니 게가 호랑이면 쓸개 한 보 못 주겠다. 도로랑 귀신 게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똥을

소설 이해력 높이기

작품명과 작가 : 토끼전, 작가 미상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허욕에 대한 경계와 왕에 대한 충성심

짧은 줄거리 : 용왕이 병이 나자 도사가 나타나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이 때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한다. 이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이른다. 간을 내리는 용왕 앞에서 속은 것을 안 토끼는 피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크게 토끼를 환대하면서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자라에게 욕을 하면서 숲 속으로 도망가 버린다. 어이없는 자라는 육지에서 죽거나 빈손으로 수궁으로 돌아간다. 이후 토끼는 뒷과 독수리의 위험도 피로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준다.

와락 싸고, ㉠초가성중(楚歌聲中) 놀란 패왕 포위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 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단듯, 편전살 달아나듯, 왜물 조충 철환 단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림(東林)을 헤치면서 쭈루쭈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중략)

한창 이리 춤을 출 제, 대장 범치 토끼 옆에 섰다가,

“이크, 토끼 뱃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고.”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랑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 아빨싸,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 즉시 가는 것만 못할지고.’

이리할 제 별주부 연석에 참여하였다가 눈을 부릅떠 토끼를 보며 가만히 꾸짖어 왈,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

토끼 마음에 분하여 파연(罷宴) 후에 왕께 주왈,

“소토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 오래 묵은 자라를 구하여 쓰면 기운 자연 회복하올 것이요, 그 다음에 소토의 간을 쓰면 병세 불일내(不日內) 평복(平復)하오리다.”

왕이 이때 토끼 말이라 하면 지록위마(指鹿爲馬)라도 믿고 듣는지라. 즉시 하령 하되,

“출세(出世)하였던 별주부 오래 묵은지라. 법을 좇아 잡아들이라.”

하니 현의도둑 거북이 아뢰되,

“㉡옛 말씀에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지면 좋은 활이 숨는다.’ 하였사오니 선생 말씀이 옳사오니 주부는 만리타국의 정성을 다하여 공을 이루고 왔삽거늘 제후로 봉하기는 고사하고 죽이는 것은 불가사문어인국(不可使聞於隣國)*이라. 특별히 권도(權道)를 좇아 암자라로 대용하심을 바라나이다.”

왕 왈,

“윤허하노라.”

하시니.

이때 주부 천지 망극하여 집에 돌아와서 부부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다가 문득 생각하여 왈,

“내 일시 경솔한 말로 음해를 만나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을 당하게 하였거니와 천 리 동행한 정분이 적지 아니하고 제 마음이 악독하여 고집스럽지 않으니 우리 정성을 다하여 빌면 다시 측은히 생각하여 구하리라.”

하고, ㉢즉시 별당을 소쇄(掃灑)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칭하여 상좌에 앉히고 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하는 말이,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은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

토끼 수염을 만작이며 웃어 왈,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 하물며 없는 간을 있다 하여 기어이 죽이려 함은 무슨 일이며, 위대한 때에 이르러 애걸하는 것은 나를 조롱함이냐?”

— 작자 미상, 「토끼전」—

* 불가사문어인국 : 이웃 나라에 알려져서는 안 됨.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상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② 호랑이가 별주부의 외양에서 떠올린 갑주와 방망이 총은 상대와 맞설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 ③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자기 재주를 장담하는 것은 패배를 설욕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 ④ 토끼가 낚새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왕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지 때문이다.
-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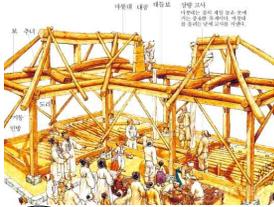
- ① ㉠ :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의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 : 동일 행위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통해 대상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 :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화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⑤ ㉤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작품명과 작가

가) 고시조,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동량재 = 뛰어난 인재(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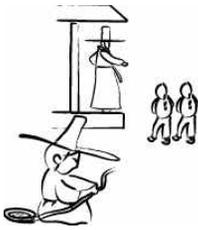
주제 |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

- 표현상의 특징
1. 유추적 사고를 통해 동량재를 뛰어난 인재로 비유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해제 이 시조는 당쟁의 탁상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나) 고공담주인가, 이원익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마누라 : 임금
 종 : 하급 신하
 어른 종 : 화자이자 고위 신하
 우회적 표현
 풍자성 강화

주제 |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안

- 표현상의 특징
1. 국가를 집으로 유추하여 표현함으로써 우회성과 풍자성을 높이고 있다.
 2. 연쇄와 반복을 통해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3.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해제 국가를 집에 비유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기|

「토끼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박하는 지혜의 대결을 서사의 기초로 한다. 인물들은 상대가 모르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화제로 대화를 이끄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며, 불리한 국면에서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거나 대결을 회피하기도 한다.

-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는 별주부 자신의 근본으로 화제를 이끌어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군.
- ② 호랑이는 별나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어 별주부에게 자신을 공략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군.
- ③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토끼를 회유하여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고 있군.
- ④ 토끼는 용왕의 병과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별주부로 화제를 옮김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군.
- ⑤ 토끼는 별주부가 자신을 유인했던 과거의 일을 화제로 끌어 들여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등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썬이로다
 비 식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누라서 곳쳐 쓸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누 드르며 논의(論議)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타 계시거니
 옥 곱튼 얼굴리 편헐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누 타시라 훌셔이고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너 주인 외다 헝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헝야 사퇴나이다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헝시면 가도(家道) 절노 날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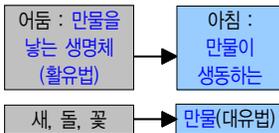
|보기|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 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중'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험 업는 중'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혀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작품명과 작가
⑦ 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어둠이 생산한 아침 이미지의 생동적이고 순수한 아름다움

요 표현상의 특징

- 1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생동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 2 잉태와 생산의 이미지를 활용해 어둠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해제 아침이면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모든 물상이 잠에서 깨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새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A]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험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명과 작가

④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텔레비전 : 기계
문명(대유법)

풀벌레 :
자연(대유법)

주제 | 자연의 작은 소리에서 느끼는 즐거움

표현상의 특징

- 1 대유적 표현으로 자연의 소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2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를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파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해제 기계 문명에 휩싸여 소원해졌던 자연의 작은 소리들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차'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폴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6 수능 국어 B형 문제 정답 및 해설

홀수형

2016 수능 B형 정답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⑤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①	19 ①	20 ④	21 ③
22 ③	23 ③	24 ②	25 ①	26 ③	27 ⑤	28 ②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⑤	34 ③	35 ②
36 ④	37 ①	38 ⑤	39 ③	40 ①	41 ④	42 ①
43 ⑤	44 ④	45 ③				

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말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해설사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진행자는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연관시키고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라며 질문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진행자는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라고 말하면서 대답에서 다름 내용의 주제를 안내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묻고 있다. ③ 해설사는 문헌적 기록을 활용해 진행자의 말이 사실임을 알려주고 있다. ⑤ 진행자는 청취자들에게 확인을 권유하면서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 ✓ **해답** ④

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표현 기법에 맞는 대담의 제목과 이를 의도에 맞게 활용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해설사의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라는 말에 대담의 주제가 드러나 있는데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라는 표현은 이를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이를 답사 목적에 맞게 서술하면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과학적 원리는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항전의 역사는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④ ㉠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은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⑤ ㉠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어 적절하나 ㉡의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은 대담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 **매답** ②

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연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A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의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연설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 **오답 바꾸기** ① '우리는 개최지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 도시의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라는 말에 드러난 내용이다. ②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드러난 내용이다. ③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이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드러난 내용이다. ④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라는 말에 드러난 내용이다.

✓ **매답** ⑤

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연설문에 드러난 말하기 전략 즉 방식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연설문의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대회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A시의 시민들, 나아가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은 사이클 비인기 지역에서의 대회 개최가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전환시켜 오히려 사이클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연설문의 내용에 '대회 개최가 A시 시민들 간의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③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우려도 있지만, 선수로 출전해 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라는 내용은 강점 부각이 아니라 약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④ 개최지 선정의 불공평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⑤ 자료를 인용하여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을 강

조하는 내용은 없다.

✓ **해답** ②

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말한 내용에 대한 논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논거가 없는 주장, 상식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주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 등에 대해 논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이라는 내용에 경쟁 도시의 시민의 지지율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박은 옳다.

● **오답 비루기** ②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라는 말에 성공 여부를 밝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③ '정부도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라는 말에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④ 상대방을 논박하는 말이 아니라 지지하는 말이다. ⑤ '우리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라는 말에 대회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 **해답** ①

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자료를 상위 개념으로 적절하게 묶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와 ㉡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의 상위 개념은 소비의 양상이다. ㉢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과 ㉣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의 상위 개념은 소비에 따른 문제점이다.

● **오답 비루기** ② ㉠, ㉡의 상위 개념이 현황은 될 수 있으나, ㉢, ㉣의 상위 개념이 소비 생활의 종류가 될 수 없다. ③ ㉠, ㉡의 상위 개념이 실태가 될 수 있으나, ㉢, ㉣의 상위 개념이 소비 생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④ 목적과 필요성은 ㉠, ㉡, ㉢, ㉣ 어느 것의 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 ⑤ 대책은 ㉠, ㉡, ㉢ 등의 상위 개념이 아니다.

✓ **해답** ①

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질문의 주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 ㉡에서는 '제품에 환경 표지를 붙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는 구체적인 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등으로 묻고 있는데 이는 주제 '제도적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것'과 관련된,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질문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③, ④, ⑤ 모두 쟁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질문의 주제와 어긋

난다.

✓ **매답** ②

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주어진 자료를 제시된 주제와 관련시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III-2-나' 항목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인데 (나)와 (다)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있으나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나)와 (다)에는 'III-1-가' 항목인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친환경 표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에 도움이 된다. ③ (나)에는 'III-2-가' 항목인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과 관련된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라는 내용이 있어 적절하다. ④ (다)에는 'III-2-나' 항목인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와 관련된 'OO 기업은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동종 제품의 평균보다 줄인 음료를 개발하고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출시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 적절하다.

✓ **매답** ⑤

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소재와 관련된 표현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소재 '가을'과 관련시켜 표현한 주제는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이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 **오답 비루기** ①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②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③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라는 구절에 표현되어 있다.

✓ **매답** ④

1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는 결론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둘째 문단의 주제는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보기>의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로 유추하여 보면 서로 다른 점을 지닌 개인들의 조화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하면 ③과 같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둘째 문단의 주제는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 해답 ③

1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표준 발음과 이에 적용된 원칙이 옳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닭+하고'에서 '닭'은 ⑥의 "결받침 'ㄱ, ㄴ'은 [ㄱ]으로 발음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닥]으로 발음하고, 이 [닥]이 '하고'를 만나 [다카고]로 발음한다. 이때 적용된 원칙은 ㉔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여덜비]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㉔이다. ② [목של]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㉔이다. ③ [흥만]으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㉔, ㉔이다. ④ [갑까지]로 발음되고 이때 적용된 원칙은 ㉔이다.

✓ 해답 ㉔

1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맞춤법 규정에 알맞은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㉔에는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합성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웃소매'는 [웃소매]로 발음되는 합성어나 어법에 맞게 '웃소매'로, '밥알'은 [마발]로 발음되는 합성어나 어법에 맞게 '밥알'로 표기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이파리'는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나 '얼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파생어이다. ② '마소'는 소리대로 적은 합성어나 '낮잠'은 어법에 맞게 적은 합성어이다. ③ '웃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파생어이고 '바가지'는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이다. ⑤ '꿈'은 소리대로 적은 파생어나 '사랑나'는 소리대로 적은 합성어이다.

✓ 해답 ④

1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지시어나 호칭어의 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첫 번째 대화인 ‘아들 :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엄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라는 말에서 ‘엄마와 아들인 ‘영수’의 대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아닌 ㉠의 ‘누나’는 영수의 누나로 화자나 청자가 아닌 제삼자이다. 그러나 ㉡의 ‘영수’는 청자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엄마’는 청자 아들 영수의 관점이고 ‘누나’는 청자 아들 영수의 관점이다. ② 각각 아들과 엄마의 첫 번째 대화에서 ‘엄마와 아들인 ‘영수’의 대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은 ‘엄마’를 ㉡은 ‘아들’인 영수를 가리키므로 두 사람 다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③ ㉠, ㉡ 둘 다 ‘2015년 12월 30일, 오늘 하루만 50% 할안’이라고 쓰인 것을 가리킨다. ④ ㉡은 ‘2015년 12월 30일’을 가리키고 ‘엄마’는 ㉠을 ‘어제’로 확인하고 있다.

✓ **해답** ⑤

1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단어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같이㉠’은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같이’ 다음에 ‘차가운’ 등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서는 ‘매일같이’ 다음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오지 않고 ‘지하철’이라는 명사가 오고 있어 ‘같이㉠’의 용례가 될 수 없다. 이때의 ‘같이’는 ‘같이㉡’의 용례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같이’ ‘㉠’에서 ㉠은 부사임을 나타내고 ‘㉡’에서 ㉡는 조사임을 나타낸다.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에서 둘 다 ‘함께’의 의미가 공유되어 있어 동일 어근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같이하다’는 ‘같이’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이자 복합어이다.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를 ‘【(…과)…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가지 문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를 사용하면 세 자리 서술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⑤ ‘같이하다’ ①의 용례로 ‘=함께하다①’과 그 의미나 용법이 같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해답** ②

1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문법에 맞는 문장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②에 해당하는 문장을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뽑아보면 '사람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은 '후'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이도 문법에 맞는 문장이다. '후'는 '후에'의 준말로 부사어로 문법에 맞다. 또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는 '관형어+부사어+부사어+관형어+관형어' 형태의 구조로 문법에 맞다.

● **오답 비루기** ① '발전해'를 '발전시켜'로 고쳐야 된다. ③ '따라'를 '따른'으로 고쳐야 된다. ④ '요점'이 문장 전체의 주어이므로 서술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고쳐야 된다. ⑤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를 '학생들의 서술어가 되게'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로 고쳐야 된다.

✓ **해답** ②

1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고어를 현대어로 고쳐서 생각할 때 그 형태소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의 '아'와 ㉡의 'ㅣ'와 관련된 현대어 풀이는 '선인이 아뢰되', '연꽃이 납니다.' 등으로 되어 있다. 현대어로 보아 '선인'은 주어이고 '연꽃'도 주어이다. 참고로 고어에서는 받침 아래에서는 '아'가, 모음 아래에서는 'ㅣ'가 주격 조사로 쓰였다.

● **오답 비루기** ① 현대어 풀이 '하신'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③ 현대어 풀이에 '-스'를 관형격 조사 '-와'로 풀이하고 있다. ④ ㉠과 ㉡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나 현대어 풀이에는 동일한 부사격 조사 '-에'로 되어 있다. ⑤ '-다'가 '-지'로 바뀌는 것이 구개음화이다.

✓ **해답** ②

1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대상에 대한 두 논자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도덕적 운에 대한 ㉠의 논지는 둘째에서 넷째 문단에 드러나 있는데 태생적, 상황적 결과적 운 즉 도덕적 운을 인정하면 도덕적 평가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글쓴이의 논지는 다섯째 문단의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문장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두 논자의 공통점은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글쓴이는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
 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
 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서 결과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상식’도 부정하는 셈이
 다. ② ㉠은 운을 통제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 ③ ㉠
 은 성품과 관련하여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
 고 글쓴이는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성품이 행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은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도덕적 운
 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매답** ⑤

1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관점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의 관점은 무지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도덕적 평가
 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인데 ㄱ과 ㄴ은 스스로 통제할 경우이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 **오답 비루기** ㄴ의 경우는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이고 ㄷ은 무지의 경우이므로 도덕적 평
 가의 대상이 아니다.

✓ **매답** ①

1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사례에 대한 원리 적용이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보기>의 사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 B 두 사람 모두 무모하고 독선
 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다고 판단할 것이며 통상 사람들이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는 것은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
 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에 드러난 태도처럼 A는 B에 비해 무모
 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
 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라는 주장
 은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의 주장이다. ③ 태생적 운을 인
 정하는 사람의 경우는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평하게
 생각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A, B 두 사람 모두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

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다고 판단할 것이다. ⑤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 경우 공평하게 생각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해답** ①

2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라는 구절에서 '부정하고'의 예외 규정이 '국한' 뒤에 이어져야 하므로 '국한'은 한정적 의미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국한'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이다.

● **오답 바꾸기**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사전적 의미를 추론해 보자. ①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 윤리는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이라는 구절에서 '기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본질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② '거론' 뒷문장의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보아 거론은 '말하다'란 의미와 유사한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③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개입'은 '끼어들다'란 의미가 되어야 한다. ⑤ '정당하지 못하므로'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편하는' '정당하지 않다'란 의미와 관련되어야 한다.

✓ **해답** ④

2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 전개 과정과 주제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쟁 원리로 정답 찾기** 우선 각 문단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단 : 지식 경영의 개념, 둘째 문단 : 폴라니의 암묵지의 개념과 역할, 셋째 문단 : 노나카의 암묵지와 명시지의 실용적 구분, 넷째 문단 : 노나카의 지식 변환의 네 가지 유형과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다섯째 문단 : 지식 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이로 보아 전체의 주제는 지식 경영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건이다.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식에 대한 두 사람의 논의와 지식 경영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에 대한 논의는 없다. ② 지식 경영론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 ④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논의는 없다.

✓ **해답** ③

2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낸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노나카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고 하였으므로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는 것은 잘못이다.

● **오답 비루기** ① 폴라니는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은 암묵적 지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도 암묵적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② 폴라니의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의미이다. ④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의미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⑤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라는 내용과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는 내용을 종합한 내용이다.

✓ **해답** ③

2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③에서 터치스크린 메뉴얼들은 명시지이고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암묵지이므로 ③은 '내면화'의 사례이다.

● **오답 비루기** ①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된 것이므로 '공동화'에 해당한다. ②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은 명시지에 해당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명시지에 해당하므로 '연결화'의 사례이다. ④ 교재는 명시지에 해당하고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암묵지에 해당하므로 '내면화'의 사례이다. ⑤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한 것은 암묵지에 해당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된 것이므로 '표출화'에 해당한다.

✓ **해답** ③

2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핵심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F사는 명시지만 중시하고 암묵지를 홀대하는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은 명시적 지식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는 것도 명시적 지식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F사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의 산출을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였다.라는 내용과 같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못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암묵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③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은 암묵지의 전수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암묵지에 대한 보상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암묵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②

2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핵심 원리로 정답 찾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하였는데 승소는 패소의 경우가 있으므로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 **오답 비루기**

②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하였으며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 하였는데 그 공통점은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다. ③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라 하였으며 해제조건은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상 유지되는 효과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고 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고 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툴 길이 없어진다.'고 한 것은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기판력과 관련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①

2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지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하여 패소하면 E가 승소하게 된다. E가 승소하게 되면 두 번째 소송에서 또 P가 E에게 수강료를 내라고 청구하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라는 계약에서 조건이 만족되었으므로 승소하게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E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수강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E의 패소를 의미하므로 수강료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④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패소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 **해답** ③

2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논제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기한인 2015년 2월 15일이 되기 전인 같은 해 11월 30일 전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것은 이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이므로 불가능하다.

● **오답 비루기** ① 확정 판결이 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③ 2015년 11월 30일이 기한이 되므로 기한 이전에는 을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기한이 지나면 기판력이 없어지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⑤

2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⑥와 관련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이라는 구절과 '부관'의 '부'라는 글자를 볼 때 '덧붙이는'은 추가로 보탠다는 의미가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수취는 물건을 받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③ 호칭한다는 의미이다. ④ 발생하다란 의미이다. ⑤ 특정 장소를 지나간다는 의미이다.

✓ **해답** ②

2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으로 미루어 알아 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

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였는데 동전의 부피가 변하지 않고 액체의 밀도도 일정하므로 부력도 동전 부피에 해당하는 액체 부피만큼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에는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한 압력 항력이 매우 크므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다.’라는 내용에 어긋난다. ②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내용과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이다.’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속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지는데,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가속도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쇠 막대의 부피가 일정하므로 부력도 일정하게 된다.

✓ **해답** ④

3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윗글의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 의한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상승할 때에도 낙하의 원리는 지켜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의 부력은 부피와 밀도에 비례하는데 밀도가 높은 쪽이 부력이 크다. 부력에 상응하는 항력이 작용해야 종단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쪽이 항력이 더 크다.

● **오답 바꾸기** ①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는 항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은 모두 0이다. ②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가 B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A의 속도가 B보다 크다. 윗글의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에 상응하여 커진다.’라는 내용을 고려하면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중력은 변함이 없고 부력도 부피가 일정하므로 변함이 없다. 따라서 그 차이도 변함이 없다. ④ 속도가 줄어들어 종단 속도가 되려면 가속도가 0이 될 수 있게 항력이 점점 커져야 한다.

✓ **해답** ⑤

3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소설의 서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장 원리로 정답 찾기 '나는 '아내가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엘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잡함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두 꼭 무슨 일이 터 질 것만 같애요.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얇는 여편네나 조산 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쩔 그리 짹짹인지!"라는 말로 권 씨 내외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자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 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라는 구절과 같이 권 씨를 불러내게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한 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을 생각하면 꽤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명을 앓았다.'라는 구절을 볼 때 아내가 생명을 앓은 이유는 '한 열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칠 일' 때문이다. ②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변히 건사 못 하는 한 열간이 사내'라는 구절로 볼 때 경제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됨이나 학식 등 다른 면모에 서 여간내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③ '진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귀땀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라는 서술로 볼 때 '나가 아내의 귀땀으로 진통이 시작된 시각을 알게 된다. ⑤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라는 구절에서 '권 씨'의 행위는 '나를 화나게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권 씨'에 대한 '아내'의 원망을 누그러뜨린다는 내용은 알 수 없다.

✓ 예답 ④

3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서술의 의미로 올바른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장 원리로 정답 찾기 ㉠은 '권 씨의 아내가 자신의 출산 예정일도 모르더라'란 내용은 담고 있다. 이는 '아내의 말을 통해 권 씨 부인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다.

● 오답 비루기 ㉡은 '나의 꿈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그 의미를 분석하거나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서술한 것은 아니다. ㉢은 '아내의 권 씨 부인에 대한 비웃음을 표현한 것이고 ㉣은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게 강요당 했다는 의미로 인물의 행위를 분석하고 있어 부정적 시선이 드러난다.

✓ 예답 ②

3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비평 관점으로 소설을 감상한 것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나의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난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라는 대화에서 ‘우리’는 ‘나’와 ‘나’의 ‘아내’를 가리키므로 이 대화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당신더러 대신 낳으라고 떠맡기진 않을 거야. 걱정 마.”라는 대화로 보면 ‘나’가 권 씨네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 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다.’라는 구절로 보면 권 씨네를 염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파괴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소시민’의 모습이다. ②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뺨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인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똑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일을 하는 눈치였다.’라는 구절에서 권 씨는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낸다. ③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더러는 홍보고 또 더러는 우려해 왔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아내의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구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앨 집에서, 그것도 산모 훈장힘으로 낳겠다니’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⑤

3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대화 내용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최 씨는 ㉠에서 외손자에게 남편 김성배와 동학꾼 2명이 잡혀 사정으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고, ㉡에서 외손자에게 남편 김성배 일행을 사형장 과녁 앞에다가 일자로 세워 놓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최 씨는 자신의 남편이자 영오의 외할아버지인 김성배와 관련된 과거의 사연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④ 영오의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병정들이 끌고 가서?’라는 반응으로 보면 영오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과 ㉡은 시간적으로 이어진 서술이고 이는 최 씨의 ‘나가지는 못하고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라는 대화로 보아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해답** ③

3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무대 지문의 구실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 이후에 그 전 장면으로 돌아가서 ‘최 씨와 ‘영오’가 등장하지 ‘모친’은 등장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비루기** ① ㉠ 다음에 무대의 배경이 바뀌므로 적절하다. ③ ㉡ 이후에 ‘죄수들이

등장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⑤ ⑥ 직전의 장면은 최 씨 남편 일행이 처형 판결을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고 ㉠ 직후 장면은 최 씨 남편 일행의 처형장 장면이다. 따라서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보여준다.

✓ 해답 ②

36.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춰 회곡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최 씨 가족의 수난은 동학 농민 운동과 3·1운동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지 최 씨의 신중한 대응 때문이 아니다.

● 오답 바꾸기 ① 극중에서 영오는 외할머니인 최 씨에게 질문하고 있고 최 씨는 동학 농민 운동을 회상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최 씨가 남편이자 영오의 외할아버지가 동학 농민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2장의 무대 배경으로 보아 적절하다. ⑤ <보기>의 '이러한 이중적 시간 구조는 과거와 현재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구절에서 과거는 동학 농민 운동을, 현재는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④

37.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인물의 의도나 심리, 태도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별주부가 호랑이 앞에서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과 '호랑이 앞턱을 냅다 물고 매어 달리나'라는 구절을 관련시켜 보면 이는 호랑이에게 죽을 각오로 싸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② "이크, 장사 갑주 속의 방망이 총 나온다."라는 구절과 '자라 호랑이 질리는 기색을 알고'라는 구절을 관련시켜 보면 이는 호랑이가 겁을 먹은 것을 나타낸다. ③ 자라가 패배했다는 내용은 없다. ④ "토끼 깜짝 놀라, '어떤 게 간이라고? 뱃속에 물똥이 들어 출렁거리는 걸 간이라 하겠다.'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토끼가 낚시를 보아 떠나라는 말을 떠올리고 즉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⑤ 별주부가 부인이 대신 죽게 된 것을 자신의 경솔한 말과 음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양인(兩人) 목숨이 선생께 달렸으니 넓으신 도량으로 짐작하여 잔명을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별주부 부부의 두 목숨을 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 해답 ①

38.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㉔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여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으므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나 일이 되어가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㉑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라는 구절에서는 동일 어구의 반복되었고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라는 구절에서는 반복법과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자라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② ㉒에서는 뚝, 빙빙, 찢걱 등의 의태어가 사용되었는데 의태어는 대상의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③ ㉓에서는 도망가는 모양을 다섯 가지로 비유적으로 묘사해 호랑이가 처한 긴박한 상황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④ ㉔에서는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숨는다.’라는 고사를 활용해 별주부를 죽이지 말라는 의사를 용왕에게 전달하고 있다.

✓ **해답** ⑤

39.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설을 잘못 감상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별주부는 범치가 토끼의 간에 대해 말한 바를 가지고 “내 듣기에도 출렁출렁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토끼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별주부는 호랑이가 모르거나 호랑이에게 불리한 화제 즉 별주부 자신의 근본과 도로랑 귀신을 내세워 자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② 호랑이의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④ ‘소도 세상에서 약간 의서를 보았거니와 음허화동(陰虛火動)의 병에 원기 회복하옵기는 왕배탕이 제일 좋다 하오니 왕배는 곧 자라라’라는 토끼의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⑤ ‘네 당초에 날 죽을 곳으로 유인함도 심장에 고이하거늘’이라는 토끼의 말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40.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의 표현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 연쇄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강한 리듬감을 형성시키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 비루기** ② (가)의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흘고’라는 구절에서 ‘흘

고'는 '할까'의 의미이므로 설의법을 써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뒤라서 힘써 홀고'라는 구절에 동일한 표현 기법이 사용하였다. ③ (가)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량제→인재, 집→국가, 목수→인재 관리자(임금 등) 등은 은유법이다. 또 (나)에서는 '옥 곱튼 얼굴리 편하실 적 몇 날이라'라는 구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였다. ④ (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해답** ①

41.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㉔의 '새끼 쇠기'는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라는 구절에서 보듯 화자가 청자에게 만류하는 행위이다.

● **오답 비루기** ① ㉑에 대해서는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소임을 다하지 않는 비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㉒은 '아니 멀니 단이거든 /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뒤라서 힘써 홀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가까이 있는 도적으로 경계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③ ㉓은 '외다 흥기 종의 죄 만컨마는 /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하야 사되나이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사되는 대상 청자이고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서 보듯 화자는 청자를 설득하고 있다. ⑤ ㉕은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이다.

✓ **해답** ④

42.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유추적 사고를 바탕으로 볼 때 시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집을 국가로 유추하여 본다면 (가)의 '동량제는 '헐쓰더 기운 집' 즉 기울어진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나)의 '어른 종은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서 보듯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믿어야 할 대상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나)의 '기운 잡도 '진실노 이리 흐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바로세우고자 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의논'은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라는 구절에서 보듯 시급한 상황에 말만 많다는 의미이므로 '탁상공론'이란 뜻이다. (나)의 '논의'는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 명령을 누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국가 일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다. ④ (가)의 '못 목수'는 '허둥대다 말려나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허둥거리기만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신하란 의미이지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이란

의미가 아니다. (나)의 '험 업는 좃은' 험 업는 좃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 와라는 구절에서 보듯 나라 일에 큰 책임이 없어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신하란 의미이다. ⑤ (가)의 '못 목수'가 실무를 담당하는 신하란 의미이므로 '고자'자는 실무를 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이다. (나)의 '문혀진 담은' '뉘라셔 궂쳐 즐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고쳐 쌓아야 할 대상, 즉 국가의 방어벽이란 의미이다.

✓ **해답** ①

43.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가)의 '어둠은 새를 낳고, 들을 / 낳고, 꽃을 낳는다'라는 구절은 어둠의 생산력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의 어둠은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등의 구절에서 보듯 기계 문명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구실을 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가)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구절에서 어둠 다음에 이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고 있고 (나)는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등의 구절에서 어둠이 계속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어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구절이 어둠 다음에 변화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는 '벌레 소리들 환하다 /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라는 구절에서 방 안의 변화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⑤

44.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 지상의 즐거운 움직임이 어울리는, 생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생기 넘치고 즐거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일상적인 삶을 위하여 가볍게 움직이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아침이면, /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사물들이 아침에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④

45.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C의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 다라는 구절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라는 구절과 관련을 맺으면서 작은 울음을 우는 풀벌레에 대한 애처로운 정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A의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라는 구절은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B의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는 구절은 작은 울음을 우는 풀벌레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됨을 표현함으로써 인식의 범위를 넓힘을 보여준다. ④ D의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라는 구절은 텔레비전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작은 울음소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표현이다. ⑤ E의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라는 구절은 풀벌레 소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환해진 마음 즉 기쁜 마음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 **매답** ③

수능국어 짱 시리즈는 최신 원리와 유형 문제를 제시합니다.

- 수능국어 짱 **현대시/고전시가편**
- 수능국어 짱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 수능국어 짱 **독서편**
- 수능국어 짱 **문법/화법/작문편**
- 한자 성어 퍼즐, 속담 어휘로

수능국어 짱 시리즈는 인터넷 상 **오르비스 유틸무스 전자책 판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수능국어 짱** 시리즈의 저자 **이성호** 선생님의(문의처 : 010-7932-4149) **명쾌하고 확실한 해설**

감사합니다.